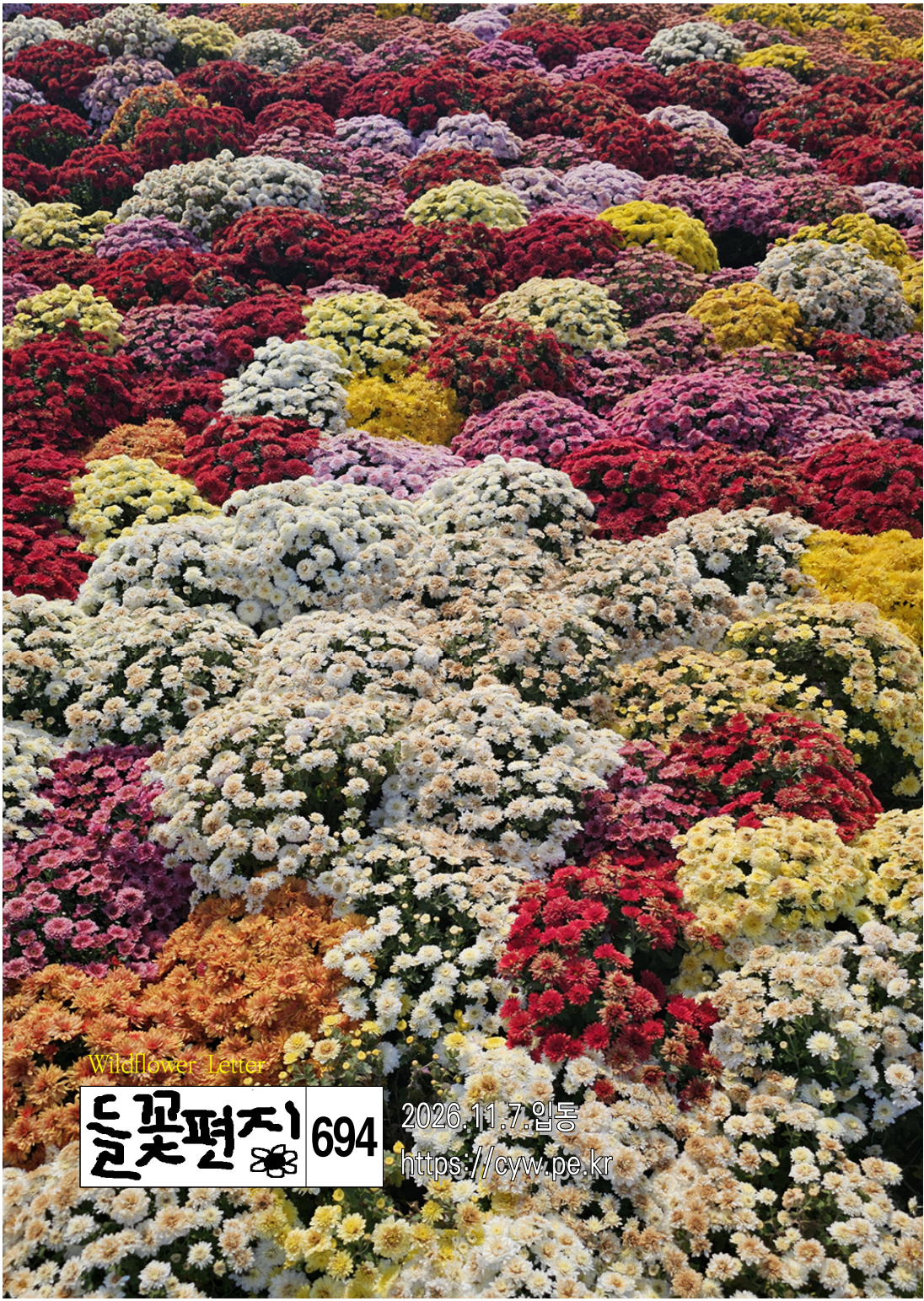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94

2026.11.7.입동

https://cyw.pe.kr

□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저 감사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가을은
짧아서
더욱 찬란하구나."



라는 코딱지 시를 썼는데 쓰자마자 금방 겨울이 되었습니다. 입동(立冬)은 겨울의 시작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1월이지만, 달력(음력)으로는 10월입니다. 숫자로 쓰면 '10월'인데 말로 하면 '시월'이라고 발음되지요. 옛날에는 시월을 달 중에 가장 높은 달이라는 뜻으로 '상달'이라 했습니다. 추수를 끝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여 보기만 해도 배부른 달이기도 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늘에 천제(天祭)를 지냈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시제(時祭)를 지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도 11월은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최근에 생긴 절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온 유구한 절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23:16)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 철을 모르고 매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니 1년에 한 번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여 창고에 가득 쌓는 추수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감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키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 공기를 주셔서 내가 숨 쉰다는 것을 알고 감사, 그저 감사,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하며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높은 자존 깊은 겸손

전각 예장 이준우
https://blog.naver.com/yejjjang

맷돌질하는 두 여자

예수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을 시(視)라고 한다.
시(視)를 하면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똑같아 보일 것이다.

시보다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을 관(觀)이라 한다.
관을 하면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맷돌질을 하는 것은 일반이나
왜 하는지 그 동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보다 더 자세히 보는 것을 찰(察)이라고 한다.
찰을 하면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동기에서 같다 해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한 여자는 맷돌질을 기꺼이 하는 데(安)
다른 여자는 투덜거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85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새로 온 외곽 청소 아저씨가 저의 맘을 부글부글 긁어 놓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퇴근하기 전 모든 분리수거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분리수거장마다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청소 다 해놓고 퇴근해야 하잖아요?" "다 했슈."

벽시계나 식탁등 폐기물이 나오면 요금을 받고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한군데에 다 모아 놨습니다.

"이거 어느 가정에서 나온거죠?" "믈류"

구석구석 낙엽을 치우지 않아 일부러 쓸어모아 놓아도 그것조차 치우지 않습니다. "왜 안했슈? "딴 거 하느라고 못했슈"

엘리베이터에 종종 반려견이 한쪽 다리를 들고 실례를 하여도 반려견 주인이 나 몰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닦어야 되요."

"왜 내가 그거까지 해유?"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를 쓴 3개월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새벽 일찍 경비 순찰을 마치고 마음이 착잡하여 어찌하여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을 때, 아내가 보내온 카톡에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시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3:9)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21세기 한국 교회를 향한 95개 반박문

최광열 목사
https://www.facebook.com/napalsoli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현상(기복신앙, 세습, 목회자 우상화, 성도들의 맹목적 추종, 이웃 없는 신앙 등)에 비추어 재구성한 '21세기 한국 교회를 향한 95개 반박문'입니다.



제1부 1-20
참된 회개와 신앙생활

1조 :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눈물 흘리고 잊어버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돌이키는 '삶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2조 : 회개는 주일 설교에 감동 받아 헌금 봉투를 내거나 교회 봉사를 늘리는 형식 행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3조 : 마음으로 뉘우친다고 하면서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자기중심으로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4조 :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파하는 진정한 회개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5조 :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죄 사

함을 대신 선언하거나, 하나님 위에 서서 형벌을 면해줄 권한은 없습니다.
6조 : 목사가 성도에게 "내 말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적 사기입니다.
7조 : 하나님은 직분이나 계급을 보지 않으시며, 교만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8조 : 교회의 모든 규칙과 제도는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 수 없습니다.
9조 :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며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10조 : "헌금을 많이 내야 자손이 복을 받고 조상의 죄업이 씻긴다" 고 가르치는 것은 무속 신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11조 :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온데간데없고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만 전하는 설교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12조 : 예전의 한국 교회는 삶의 열매로 신앙을 검증했으나, 오늘날은 교회 출석률과 헌금 액수로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조 : 직분(장로, 권사, 집사)은 세상의 계급이나 훈장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봉사자입니다.
14조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경외함은 없고 세상의 실패와 가난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병폐입니다.
15조 : 신앙을 이용해 세속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삶은 지옥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16조 : 참된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17조 :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18조 : 직분을 돈으로 사거나 헌금 액수로 임직을 결정하는 행위는 신앙을 매매하는 짓입니다.
19조 : '무조건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식의 번영신학은 성도들을 영적 안일에 빠뜨립니다.
20조 : 교회가 선언하는 사죄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교회의 독점품이 아닙니다.

제2부 21-40
기복신앙과 '비즈니스화'된 구원관

21조 : '작정 헌금을 내면 축복을 받고, 헌금을 안 내면 화를 당한다'고 설교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22조 : 하나님은 헌금 액수에 따라 복을 거래하시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3조 : 돈으로 축복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신도나,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24조 :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

로 환산하는 순간 교회의 교훈은 사라집니다.
25조 : 아무리 화려한 찬양팀과 세련된 설교가 있어도, 그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합니다.
26조 : 목회자가 축도권을 쥐고 성도들의 복과 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그릇된 권위주의입니다.
27조 : '헌금 봉투가 두툼할수록 당신의 문제와 재앙이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설교자는 무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28조 : 돈으로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교회의 탐욕이 낳은 저주입니다.
29조 :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고백이어야 하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30조 : 정직하게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헌금으로 죄책감을 씻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31조 :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잊은 채 오직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을 구하는 교인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32조 : '우리 교회만 오면 구원받고 복 받는다'는 식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이들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33조 :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무한한 은혜이지, 교회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34조 : 종교적 봉사와 프로그램 참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5조 : 삶의 변화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36조 : 진정으로 통회하고 돌아서는 성도는 목사의 선언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립니다.
37조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사제나 목사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38조 : 교회의 직분과 지도력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성도 위에 군림하는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9조 : '구원의 확신'을 핑계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사는 것은 구원파적 오류입니다.
40조 :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헌신과 자기부인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제3부 41-60
사회적 책임과 이웃 사랑의 상실

41조 : 자기 교회 건물 짓는 데는 몇백억을 쓰면서, 이웃의 비참한 가난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42조 : 대형 수양관과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소외된 이웃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43조 : 건축 헌금을 쥐어짜 내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과 힘겨운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44조 :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없는 신앙고백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45조 : 사회 약자의 눈물을 외면한 채 드리는 화려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46조 : 자기 가족과 부모를 봉양할 돈까지 교회의 과도한 사업에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47조 :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금은 자원함으로 해야 하지, 체면이나 강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48조 : 교회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푸념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49조 :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50조 : 성도들의 피와 땀이 어린 헌금이 목회자의 사치나 교회의 세력 확장에 쓰인다면 잘못입니다.
51조 : 교회에 돈이 쌓인다면 그 돈은 즉시 세상의 가난하고 아픈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52조 : '예수 믿으면 사업이 대박 난다'는 식의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53조 : 정교분리를 핑계로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에는 입을 닫으면서,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위선입니다.
54조 : 강단에서 성경 말씀 대신 목회자의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푸념을 전하는 것은 말씀의 타락이고 오남용입니다.
55조 : 세속의 마케팅 기법과 성공주의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56조 : 교회의 참된 보물은 건물이나 교인 수, 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입니다.
57조 : 세상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58조 :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움과 낮아짐의 길을 버리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59조 : 교회가 세상의 약자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60조 : 교회의 참된 권위는 세상 위에서의 군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에서 나옵니다.

제4부 61-80

목회자 우상화와 세습 문제

61조 : 목회자는 성도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 결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62조 :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오직 은혜의 복음뿐이며, 목사의 설교 능력이나 과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63조 : 복음 정신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늘 배척당합니다.
64조 : 그러나 세속의 기복 사상은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65조 :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물입니다.
66조 : 오늘날 일부 교회의 프로그램은 성도들의 지갑을 터는 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67조 : 대형화와 번영을 은혜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공주의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68조 :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69조 :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70조 : 목회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교회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71조 :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어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72조 : 교회의 세습(사임 후 자녀에게 담임목사직 물려주기)은 교회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73조 : 목회자의 윤리적 도덕적 몰락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은 교회를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74조 :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짓 지도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75조 : '주의 종을 대적하면 3대가 벌을 받는다'는 식의 구시대적 협박으로 성도들의 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76조 : 목사의 카리스마나 권위는 성도 죄를 사하거나 축복을 결정짓는 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77조 :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의 뜻을 굽혀 자기 야망을 정당화할 권한은 없습니다.
78조 :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기

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79조 : 십자가보다 목회자의 업적이 더 부각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80조 : 교회의 부패를 보고도 묵인하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5부 81-95
세상의 질문과 교회의 쇄신

81조 :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82조 :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교회는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가?"
83조 :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왜 그토록 건물 짓기와 자기 세력 확장에만 목을 매는가?"
84조 :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이 예수를 닮은 것인가?"
85조 :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세습과 재정 비리를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가?"
86조 :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수많은 재정을 가진 대형교회가 왜 사회의 비참한 구석을 도울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는가?"
87조 : 세상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88조 : 교회가 내부의 부조리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할수록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89조 : 교회 수나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90조 : 교회가 세속적 권력과 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91조 :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92조 : 성도들에게 삶의 성찰 없이 '무조건 잘될 것이다, 평안하다'라고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설교는 거짓입니다.
93조 :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가 참된 복음입니다.
94조 : 기독교인들은 편안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95조 :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좇는 헛된 평안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

□ 최용우詩 -야단법석

대롱대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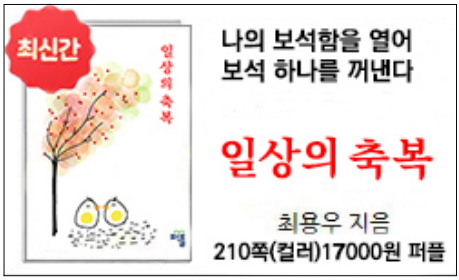
낙엽 한 잎
살그머니
어딜 가려다

딱
걸렸네
거미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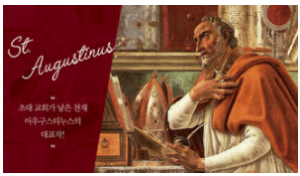
최용우 제14시집〈야단법석〉중
사진 : 김민수 목사님







15권 인류의 두 갈래 계보



416.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두 조상과 군주들

아담은 '지상(땅) 나라'와 '(하늘)나라'의 1대 조상이다.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은 '하늘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과 '셋'은 인류의 두 계열의 조상이 되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지상(땅) 나라' 계열의 나라를 세웠는데, 가인의 뜻은 '소유'이고, 에녹은 '봉헌(재물)'이라는 뜻이다. 이 세상 땅 나라는 한 마디로 돈(경제)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그 다음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아담'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 '에노스'는 장가들지도 시집가지도 않는 '부활의 자녀'를 의미한다.(눅20:35-36)

417. 아벨, 셋, 에노스는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한다

'에노스가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창4:26). 아벨은 '슬픔'이라는 뜻이며 동생 셋은 '부활'을 의미하므로, 이 두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8:24-25)

418. 하늘로 돌아간 에녹에서 볼 수 있는 상징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태어난 '에녹'은 '봉헌'이라는 뜻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5:24)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7대 후손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7일째 '안식'일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재림을 상징한다.

419. 아담에서 가인까지의 계보는 8대로 끝나지만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는 10대에 이른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눅20:34)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땅 위에는 낳거나 태어나는 일이 두 나라에 모두 공통되지만, 다시 태어나 다른 세상으로 인도되는 나라는 자식을 낳지도 태어나지도 않는다. -계속

성경과 신앙고백



1. 성경과 신앙고백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실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사리사욕 채우기에 혈안이 되었고,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은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며 권력에 기생하여 기득권 챙기기에 바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말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말하며 왕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가는 망했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끊어졌습니다. 왕도 없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아론의 제사장 계보를 이은 대제사장 '사독'만 남은 상황에서 주전 175년 이스라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 마지막 남은 대제사장의 정통성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대제사장 자리는 점령국 왕에게 뇌물을 더 많이 바치고 돈으로 사는 자리가 되었고, 대제사장이 되면 경제적으로 큰 재산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황제에게 바친 뇌물의 본전을 뽑기 위해 자신들이 지정한 제물만 제물로 바

치게 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장사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마21:13) (8492)

2. 성경의 숨겨진 힘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어떤 힘이 있기에 성경을 보면 신앙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중심 지도력이 사라진 후 서로 자기가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된 제사장파는 자기들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로 '사독파(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거대한 성전을 지어 사람들을 끌어모아 재산 늘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보수적 신앙의 바리새파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공생 관계를 맺습니다. 그밖에 암살을 주도하던 열심당, 산헤드린공의회,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말론자들 등등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무려 24가지 파가 이스라엘에 산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전쟁을 일으키려다가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강제 추방당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라진 지 1878년 만인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878년 전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망하고 3국 시대가 막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고구려의 '주몽'이 오늘날 다시 나타나 다시 '고구려'를 세운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과 설움과 학대를 견디며 2천년을 버텨낸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8493)

3. 책의 중요성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 없이도 2천년을 존재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굳게 세워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던 제사장 계급(사두개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열혈 과격파, 종말론적 메시아파 등 온갖 종파들도 다 청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파'와 예수의 제자들로 형성된 '나사렛파'뿐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만 가르칠 수 있으면 성전도 의식

이나 형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집대성하여 '토라(모세오경)'와 토라를 설명한 '미슈나(규범)'와 미슈나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담은 '탈무드'를 만들어 랍비를 통해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르친 것은 ①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②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대인을 선택하셨다. ③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 땅으로 가나안(예루살렘)을 주셨다. ④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

나라와 지도자를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랍비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과 신념으로 2천년을 버텨냈으며, 그 중심에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토라'와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8494)

4. 성경과 기독교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성경은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 계급(사두개파), 열혈 과격파, 종말론적 메시아파 등 24개나 되었던 온갖 종파들도 다 청소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파'와 예수의 제자들로 형성된 '나사렛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유대인들 다 흡수한 바리새파는 소수의 나사렛파를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자 그들은 동굴(카타콤)으로 숨거나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네 번의 전도여행을 떠난 것은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북부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는 바울의 선교사역을 막으려고 바리새파는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에게 '토라'와 '미슈나'와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다면 나사렛파에게는 '토라(모세오경)'와 서로 회람하며 돌려 보았던 '사도들의 편지'가 있었고, 예수를 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성경'으로 엮었습니다. 기독교가 2천년을 지나면서도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아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든 중심은 책(경전)입니다. (8495)

5.성경의 완성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성경의 예언으로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인용하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토라(모세오경)와 예언서등 39권을 이미 '정경'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미 정경이 된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복음은 구약성경과 함께 왔고 복음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없이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복음의 기초이자 뿌리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약성경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모든 나사렛파 그리스도 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구약성경이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구약성경과 함께 기독교 안에서 사도들과 사도적인 인물들이 쓴 저작들이 함께 읽혔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특정인에게 쓴 편지조차도 회람되며 읽혀졌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둘 사망하면서부터 사도들의 저작들은 더욱 중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2세기 중엽의 기록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신자들의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읽혀졌고 구약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된 저작들이 정경(진리 또는 믿음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었고, 수 많은 사본들 중에서 정경에 포함될 문서를 고르는데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지루한 논쟁 끝에 360년 라오디게아 교회회의, 393년 누미디아의 히포 교회회의에서 27권을 정경으로 규정하고 확정함으로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완성되었습니다. (8496)

6. 사도신경의 탄생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디디고 서 있는 사상적 근간이며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나 논쟁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도 성경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시대와 초기교회 시대에는 교회들과 유대교 이방 종교에서 갖가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온갖 주장을 하며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친 오류에 직면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에

맡기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요약하여 '신앙고백(신경)'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내용을 모호하지 않은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하다가 입으로 하던 신앙고백을 자연스럽게 기록된 형태의 고백(信經[symbool], 信仰告白書[confessiel])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중에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2세기 초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28:29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삼위일체의 형식을 띤 세례 명령에서 점점 발전한 형태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교회의 공동의 기초이자 교회를 서로 이어주는 불가분의 연결고리입니다.

사도신경 외에 각 교단, 교파들에 의해 고백 되는 네 개의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8497)

7.사도신경과 교회의 분열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현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오늘날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지난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로 들면 초대교회 시기에 '삼위일체'가 사도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와 에비온주의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10세기에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서 성령의 나오심(발출 發出 uitgang, processio) 문제로 기독교회가 동방, 서방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성령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동방교회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방교회로 1054년에 갈라섰습니다. 동방교회는 초기교회의 교리를 이어받아 지켜내는 정(통)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정(正)교회'(orthodoxe kerk)라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의 계보를 이은 서방교회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라는 뜻의 '가톨릭'(Catholic)이라고 합니다. 그 가톨릭에서 1517년에 기독교(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지요.

4.저(최용우) 개인적으로는 로마의 온갖 이교들과 짬뽕이 되어 원형을 알 수 없게 변해버린 가톨릭 서방교회와 개신교 보다 초대,초기교회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이어받은 정(正)교회의 신앙적 전통이 신앙의 본질(원래의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동방교회와 수도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498)

8.가톨릭과 신앙고백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신앙고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습니다. 오랜 박해와 증오의 시기가 지나가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한 이후에 동굴(카타콤)에서 밖으로 나온 교회에는 평화와 특권과 명예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었지만 세상적으로는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돈과 권력이 생기자 종교적 전통과 제도와 거대한 성당을 지으면서 어느덧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과 신앙고백은 교회에 유용할 뿐 필수적이지는 않게 되었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말이 되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됨(칭의)에 관한 가르침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매우 불순한 요소들과 뒤섞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과 복음 사이의 구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장로와 감독이 모두 동일한 직분(직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감독(주교)를 집사와 장로 위에 점점 높이 올려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870년 '교황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는 무류성(infallibilitas paps)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인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제사장, 왕의 자리를 침해한 것입니다.(8498)

9. 개신교와 신앙고백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교회가 신앙고백에서 변질될 때마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곤 했습니다. 어떤 개혁은 아무런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진압되어 피를 흘리며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개혁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100년 전부터 수많은 작은 개혁의 시도들이 억압과 말살의 수단이 동원되어 무위로 끝났지만, 결국 루터(Martin Luther)로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고, 신자들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 조차도 현재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열망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500년을 지내오면서 이제는 '개혁'이 '개혁'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개신교는 수천개로 쪼개지고 갈라져 '공교회'성을 잃어버렸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유일신 일원론은 '이원론, 유물론, 범신론'으로 변질되어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개혁교회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낡은 포도주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마치 멸망하기 직전의 유대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가톨릭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살려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건물을 다 부셔야 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9:27)라고 했습니다. 끝 (8500) ⓒ최용우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00-350쪽 내외의 책 총27권 중
2026년 현재는 15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가슴을 쫙 펴라!〉 308쪽 11600원 https://c11.kr/06yw
2.〈다시 벌떡 일어나라〉 336쪽 12400원 https://c11.kr/07yw
3.〈정정당당 잘 살자〉 336쪽 12400원 https://c11.kr/08yw
4.〈예수 잘 믿는 비결〉 326쪽 12100원 https://c11.kr/09yw
5.〈가장 큰 선물〉 326쪽 12100원 https://c11.kr/010yw
6.〈인생 최대의 행복〉 316쪽 11800원 https://c11.kr/012yw
7.〈나도 할 말 있다 냐옹〉 318쪽 11900원 https://c11.kr/016yw
8.〈하나님의 얼굴〉 326쪽 12100원 https://c11.kr/018yw
9.〈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쪽 12200원 https://c11.kr/023yw
10.〈예수 나의 형통〉 330쪽 12200원 https://c11.kr/027yw
11.〈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https://c11.kr/031yw
12.〈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6쪽 14600원 https://c11.kr/039yw
13.〈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https://vo.la/xYamE
14.〈회동-주님과 회동하는 삶〉 316쪽 17000원 https://vo.la/Stw2wwe
15.〈수덕의 삶〉 316쪽 17000원 https://vo.la/N7HEsR0





구절사 구절초(사진:최용우)

구절초 묵상

구절사 스님이 구절초 꽃은 키우기가 매우 까다로운 꽃이라 한다.

풀을 한번만 안 매줘도 풀에게 숨이 막혀 죽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버리고, 가을에 꽃대를 베어주지 않으면 다음 해에 싹이 부실하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결에 반영되어 살랑살랑 흔들리는 새하얀 구절초 꽃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많은 돌봄 속에 기어코 피어난 꽃을 보는 것이다.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직관하고 있으니 이것이 '황홀경'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물질의 재미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내는 신성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성(Christ Intelligence)을 찾고자 물질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버린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안 아프고 살기



그녀가 불닭볶음면으로 저녁을 먹었다는데 체했다. 밤새 잠도 못 자며 토하고 고통스러워했다.

날이 밝자 한의원에 다녀왔다. 등짝에 부황을 뜨고 왔는데 체한 것과 부황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 옆에서 아픈 사람 봐주기는 정말 힘들다.

사람은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사람은 안 아프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사람의 몸은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초정밀 기계인데, 고장이 나면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고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아프다는 것은 지금 몸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시작하겠다는 고마운 시그널이면서 아직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노란불이다. 암(癌)같은 심각한 병은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질 때까지 오히려 자각증상이 없다잖은가.

꼬리긴 고양이



군인 신랑 따라 시골(?)로 낙향한 딸2호가 신랑이 나라 지키러 가면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온 동네 고양이들을 전부 집합시키고 있다. 심지어 절에서 밥 주는 고양이들까지 딸2호를 따라다니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심복은 꼬리 긴 턱시도 고양이이다. 딸2호가 나타나면 앙앙거리면서 강아지처럼 달려와 눈을 뜽그랗게 뜨고 뭐든 빨리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아양을 떤다. 일반적으로 턱시도 고양이가 똑똑하고 장난기가 많으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용포리에 살 때, 꼬맹이가 턱시튜드(Tuxitude)고양이였다. 아는 사람을 보면 앙앙거리며 먼저 달려온다. 딸1호가 밥을 챙겨줬었는데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꼬맹이도 마당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구르는 묘기를 보여주고 영영 사라졌다.

낙엽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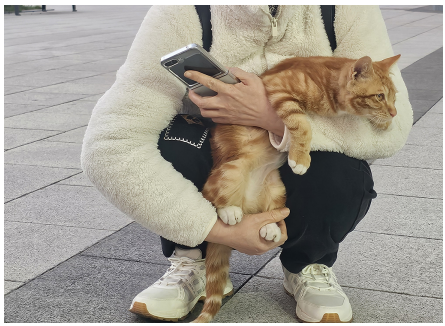


몇 백년 혹은 몇 천년 전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들보다 미개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택도 없는 틀린 생각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머리는지식을 주관하는 측두엽만 과도하게 커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전두엽(Prefrontal Cortex)은 점점 퇴화하는 중이다.

이런 상태로 50년 정도만 지나면 인간의 머리는 이티(ET)처럼 변할 것이라고 한다, 몸은 점점 사용하지 않고 기계나 로봇이 일을 다 해주니 인간의 몸은 배만 볼록 나오고 손발이 가늘어지는 이티(ET)가 되는 것이다. 1982년에 영화 이티(ET)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감독은 인류의 후손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이다.

산책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며 전두엽을 사용하여 '낙엽 묵상'을 한다. 최소한 이티(ET)는 되지 말아야지.

고양이 치즈



닭강정 가게 앞에 치즈 고양이가 산다. 밥그릇이 가게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게에서 밥을 주는 길고양이 같다.

그런데 사람 손을 하도 타서 만져도 눈을 감고 인간의 손길을 즐긴다. 일단 먹이 걱정 없으니 고양이의 삶도 성격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

그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앞을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보고 달려가 무작정 덥석 안는다. 웬 북극곰처럼 생긴 인간이 자기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와 덥석 안는데 '이거 좋아 해야돼 말아야돼?' 당황한 고양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가만히 있음.

부드럽고 따뜻한 고양이의 털을 만지며 '옥시토신' 호르몬을 실컷 분비시킨 그녀가 툴툴 털고 일어나며 쿨하게 "갑시다" 고양이를 만지고 나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어 기분이 좋아졌나 보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767회 비학산325 (일출봉252m) 2026.10.1

▲제768회 장군산-장군봉(세종) 2026.10.5

▲제769회 구절산 구절봉(355m) 2026.10.12.



구절산은 옛날 9개의 큰 절이 있었다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구절초꽃도 보고 산행도 하고 진명 스님도 만나 구절초차 한잔 대접받았다. 올해부터는 구절초축제위원회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1인 8천원 구절초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줄 안다.

구절산 구절초꽃은 중부권 최대규모라고 한다. 구절암까지 꽃을 보면서 시멘트 포장길을 걸었다. 정상에서 간식을 나누며 교제를 가졌다. 시간이 넉넉하다. 하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길이 희미하여 길 없는 곳으로 가기를 반복하다 어렵게 12시를 훌쩍 넘겨서 굴티마을로 내려왔다. 홍빈낙원에서 정주일 장로가 베푼 점심교제 후 헤어졌다.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산행이다.

▲제770회 오봉산(262m 조치원) 2026.10.19.(월) 오전9:00

▲제771회 전월산(259m) 2026.10.27.화

전월산 오르기 전에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먼저 걸었다. 정부청사 세종옥상공원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연결한 3.6km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등재되었다. 오늘은 1코스 1.5km 거리만 걸었다. 나머지 구간은 정비중이라 닫혀 있었다. 정원 관람을 마친 후 백삼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전월산 무궁화테마공원 주차장을 들머리로 '전월산' 등산과 천연기념물인 임난수 장군 은행나무를 돌아보고 오늘 일정을 마쳤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①추워진단 일기예보 내마음은 더욱쓸쓸

늘 추운 마을은 추위가 식구 같다
밥상머리 무릎 위에 파릇파릇 얼어 있다

입동/ 이영광『직선 위에서 떨다』(창비, 2003)

입동(立冬)엔 창호지 같은 햇살이 노루꼬리보다 짧습니다. 마른 미루나무 꼭대기엔 까치 한 쌍이 삭정이를 물고 들어옵니다. 질경이가 도랑물에 아린 발가락 길게 뻗치고 있습니다. 디룩디룩 살진 내 '말'의 기름기도 좀 빼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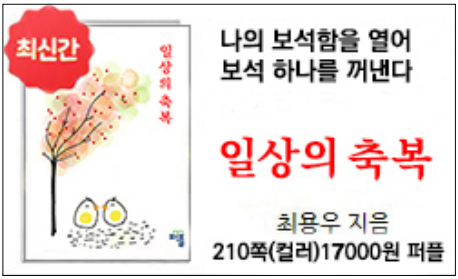


②표지사진 이야기

국립세종수목원 광장 한쪽에 여러 가지 국화 화분이 넓게 모여 있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닌데 묘하게 조화롭다. 추측하건데 국화를 키워서 수목원 이곳 저곳에 배치를 하고 남은 화분을 한곳에 모아놓은 것이지 싶다. 화분 하나하나도 예쁘지만 한 자리에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주는 웅장함, 경이(驚異)스러움 같은 것? (사진:최용우)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일상의 축복〉 최용우 19시집 210쪽(컬러) 17000원 2026.10.23.출간!
108. 〈수덕의 삶〉 (햇볕25) 316쪽 17000원 2026.9.18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104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6.10월 재정결산

2026년 10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경희 강경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배지윤 양회창 옥치오
이인숙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한주환 들꽃교회 안디옥교회
월간새벽기도 정릉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1분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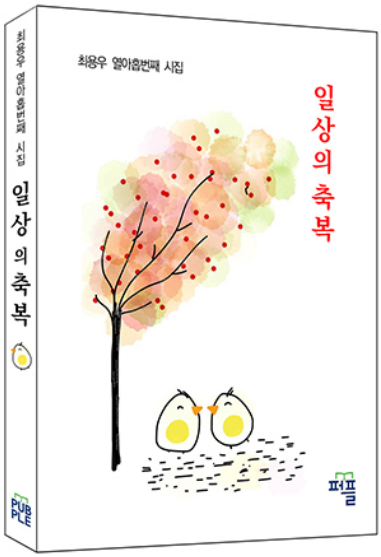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사역 -인터넷신문 햇볕같은이야기 2026.11.6일까지 8520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9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구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새로 나온 책

<최용우 시집 '일상' 시리즈>

8. 일상의 행복 /210쪽 13600원(컬러)
10. 일상의 기쁨 /210쪽 13400원(컬러)
12. 일상의 기적 /210쪽 15000원(컬러)
13. 일상의 노래 /210쪽 15000원(컬러)
15. 일상의 사랑 /210쪽 17000원(컬러)
16. 일상의 여유 /210쪽 17000원(컬러)
18. 일상의 산책 /210쪽 17000원(컬러)
19. 일상의 축복 /210쪽 17000원(컬러)

일상의 축복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축복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함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두 개나 들어 있다.
이 보석은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나는 보석함을 열고 보석 하나를 꺼내놓으려고 한다.
이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 보다도 더 이 보석을 소중하게 아껴줄
유시진('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타났다.



화창한 봄날에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벚꽃 같은 너는 봄의 벚꽃 신부

나에게 있는 축복의 반을 너를 위해 빈다.
(나머지 반은 또 다른 보석 하나를 위해 남겨놓고)

최용우 210쪽(올컬러) 17,000원 퍼플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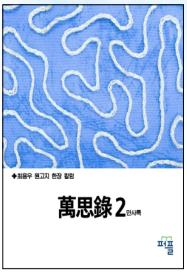
최용우 저서



만사록1권-생각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1권은 생각,열매,선물,행복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포도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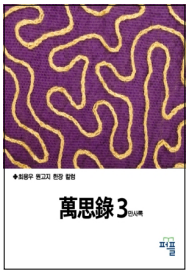
304쪽 15,000원 퍼플



만사록2권-정직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2권은 정직,천국,눈물,은혜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조약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바구니에 담습니다. '저에게 정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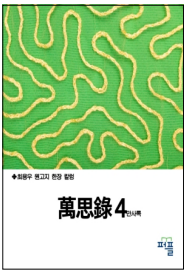
304쪽 15,000원 퍼플



만사록3권-구원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3권은 구원,복음,회개,예배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깨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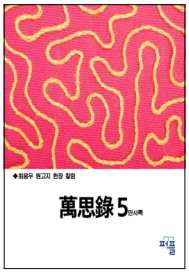
304쪽 15,000원 퍼플



만사록4권-성경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4권은 성경,수도,희생,신국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낙엽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304쪽 16,000원 퍼플



만사록5권-지혜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5권은 지옥,향유,지혜,임재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샛별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304쪽 16,000원 퍼플



신령한 법에 관한 200개의 글

필로칼리아 금욕고행자 '마크'가 사막에서 깊음 가운데 '신령한 법'에 대해 깨닫고 쓴 보석같은 200편의 글을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편집한 영성 묵상집입니다.

220쪽(컬러) 15,000원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94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